신뇨엔, 韓日 3원 동시 개광명 법요 봉행

〈開光明〉

眞如 가르침 전하는 포교 도량
1987년 제주도에 포교원 설립
부산 · 서울 가정집서 신행 생활
40여 년 신행 결실 '개광명법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교법인 신뇨엔이 한국과 일본 소재 3원 동시 라이브로 '개광명 법요'를 봉행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이 여법한 도량으로 거듭나는 의식인 개광명(開光明) 법요를 봉행했다. 신뇨엔 서울·부산 정사는 법요를 통해 이타행 실천 도량이 될 것을 맹세하고 신뇨(진여, 眞如)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하는 포교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10월 20일 신뇨엔 서울정사 법당에서 '한국 신뇨엔 정사 낙경 개광명 법요'을 봉행했다. 법요는 서울, 부산과 일본의 신뇨엔 본원 응현원에서 3원 동시 라이브로 진행됐다.

개광명 법요는 개식으로 시작해 불과 향을 피우는 등명·향화 의식과 봉대 의식, 독경, 경과를 전하는 표백 주상 등으로 이어졌다. 불자들이 예불문을 독송하는 가운데, 신뇨엔 원주 게이슈사마가 입장해 개광명 의식 쇄정입혼(灑淨入混)을 진행했다. 의식 이후 불자들은 정진을 맹세하는 꽃과 등불을 올리고 감사의 꽃다발을 원주 게이슈사마에게 올렸다.

개광명 법요에는 신뇨엔을 이끄는 이토 신소, 게이슈사마 원주와 제3대 후계자 도리카에 다카시, 부교무장 구보다 요시히로, 서울정사 한국법인 이사장 기시다 가즈오, 국제부 고다마 아츠마사, 김상환 국원, 부산정사 수법자 아끼야마 히데오, 영준 국원, 김형태 법인이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대만 신뇨엔 불자들이 동참했다.

원주 게이슈사마는 법문을 통해 "40여 년 전부터 합동집회, 한수행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진이 어린 한국에서 최초로 서울과 부산정사가 동시 낙경을 맞이함에 감사하다"며 "지역과 세대를 넘어 화합하고, 의처를 잘 연계해 신뇨의 융화세계를 구축해가자"고 당부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본 응현원의 불자들은 개광명 의식 이후 수행으로 거듭난 삶의 기쁨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서울정사 신도 유문희 씨는 "신뇨엔의 가르침을 통해 젊은 시절부터 갈망했던 삶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행,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정사의 신뇨엔 한국청년회 부장 신지운 씨는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성격이 온화해졌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듣는다"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있어 즐거웠고 청년회 부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기쁨을 여러 청년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신뇨엔은 밀교계통의 재가불자 종단으로 이타심, 봉사, 전법, 수행을 강조한다. 한국의 첫 신뇨엔 포교원은 1987년 제주도에서 개원했다. 서울의 신도들은 호텔 합동집회, 가정집 한수행 등을 이어오다가 1990년 서울 포교원 개원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1992년에는 부산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한국 신도가 증가하자 2000년 9월 17일 원주 게이슈사마가 한국을 방문했다. 2014년에 부산정사, 2017년에 서울정사가 설립돼 열반존상을 각각 봉안했다. 이후에도 많은 국원과 수행지도자를 배출해 현재 낙경 개광명 법요를 봉행, 도량 건립의 완성을 알렸다.

테러 위협에…방글라데시 카티나 법요 취소

이슬람 극단주의 타종교 테러
치타공지역 內 법요 일체 중단



카티나 법요 취소를 알리는 방글라데시 승가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OP 인디아 뉴스'

방글라데시 불교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례적으로 봉행되는 카티나 법요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인도의 'OP인디아(OPIndia)'는 방글라데시 현지 보도를 인용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에 놓인 현지 불교·힌두교계의 상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치타공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파르바티야 비구 승가'의 회장 사랏달란카르 대장로 스님은 10월 6일 오후, 미트리 보우다 비하르 사원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불교 공동체에 만연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례 봉행되어 왔던 카티나 법요를 취소한다"며 "치타공 지역 내 그 어떤 사원에서도 카티나 법요가 봉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첫째주에 예정돼 있던 카티나 법요는 재가신자들이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새로운 가사, 발우 등 생필품을 공양하는 법요로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온 중요 행사다. 재가신자들은 이날 법요에 참석해 안거를 성만한 스님들을 친견하고 찬탄하면 큰 공덕을 쌓는다고 전해져 현지에서는 가장 큰 불교 축제다.

현지 불교계는 이번 조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타종교에 대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10월 1일에 열린 힌두교도 축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해 사원과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했다. 현지 언론들은 단 6일 만에 3개 힌두사원과 16개의 힌두교 신상이 파괴됐으며, 학생 1명을 포함해 4명의 힌두교 신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사원의 보시함을 약탈하고 불상을 훼손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교가 아닌 이들은 이슬람법에 따라 지즈야(비이슬람교도가 무슬림 통치자에게 내는 종교세금)를 내야한다"며 "이를 내지 않는 불교와 힌두교도들은 모두 불법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근대 아닌 10세기 유물" 日 사찰 소장 불화의 진실

日 미이데라 소장 밀교 도상집
"불사 일환, 국보급 불화 유물"



〈오부심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소개하는 아지마 교수(중앙)과 타카마 준교수(좌).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의 한 사찰에서 소장한 불화가 최근 연구에 따라 국보급의 고대 불화로 판명됐다. 지난 10월 1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그동안 근대의 사본으로 여겨졌던 불화가 실제로는 10세기 경 원본이었다며, 우연히 그 진가가 드러난 불화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일본 오츠시(大津市)의 미이데라(三井寺)가 소장한 밀교 도상집 〈오부심관(五部心觀)〉. 두루마리 형태인 이 책은 금강계 만다라 5부의 여러 불보살과 진언, 상징을 그린 책으로 당나라에 밀교를 전한 인도의 스님, 선무외 삼장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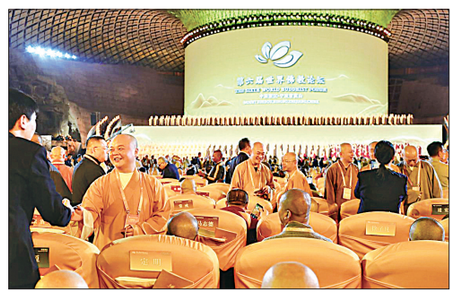
이후 855년 당나라에서 밀교를 수학한 엔친(円珍) 대사가 귀국하며 가져와 현재까지 미이데라의 보물로 보관됐다. 현재 미이데라에는 엔친 대사의 원본과 이를 모사한 2권의 〈오부심관〉사본이 전해진다. 하나는 12세기 초에 제작된 사본으로 전반부 약 3분의 1이 유실된 〈전결본〉, 또 다른 1권은 1857년에 제작됐다고 전해지는 〈호묘인본〉 사본이다.

한편 10세기 경 유물로 밝혀진 사본은 〈호묘인본〉이다. 2021년부터 〈오부심관〉을 조사해온 아지마 노리아키 히로시마대 교수와 유카리 쥰 오사카 교육대 교수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2권의 국보 〈오부심관〉의 제작연대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발견을 이뤄냈다.

연구팀은 "현재 〈호묘인본〉은 18.5m 두루마리지만, 최초에는 가로 49.5cm, 세로 33.7cm 전후 종이 39장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종이는 현미경으로도 종이 섬유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얇고 튼튼한 최고급지라 오랜 세월 거의 열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6회 세계불교포럼 개최…72개국 참석

中서, 8천여 불교도 참석
'공존을 위한 협력' 주제로



10월 15일 열린 제6회 세계불교포럼 개막식.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전 세계 불교 지도자가 모여 인류의 공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제6회 세계불교포럼이 지난 15일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에서 개막했다고 CGTN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공존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72개국 불교 승려 및 전문가, 학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공존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불교적 지혜로 전 세계에 닥친 전쟁·기아 등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종교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담론도 진행됐다.

세네갈의 얀 우(YAN WU) 스님은 "공존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불교도들 간의 국경을 넘는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체코공화국의 하즐바우어(JIRI HAZLBAUER) 스님도 "불교도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인류 중 하나이며, 종교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내는 데 도움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의 젠 빙(JIAN BING) 스님도 "지금까지 4번이나 불교 포럼에 참석했다"며 "이를 통해 여러 나라의 불교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이어진 행사에서는 여러 하위 포럼을 비롯해 미술품 전시, 나무 심기 활동 등이 진행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